

# 한국, 잠재세수손실 55조

## '소득세 법정세율·실효세율 격차 연구' 분석

### 7개국 중 세율갭 가장 커...중상위 비과세·감면 줄여야

정부가 소득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우는 소득세 제도를 설계해 놓고 다른 국가에 비해 과하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상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의 1/4 수준만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최상위 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지만,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중상위 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홍우형, 강성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누진세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느냐에 따라 누진성을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다.

논문은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을 소득수준에 따

라 분석했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세법을 통해 정한 세율이다. 논문은 인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나눠 법정세율을 산출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낸 세율을 말한다. 각 소득구간의 총 결정세액을 해당 소득구간의 총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논문은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세율갭'으로 정의하고, 그 변화를 추적했다.

세율갭은 국가가 납세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세능력을 의미한다. 추가 과세능력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

갭은 잠재적인 '세수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잠재적인 총 세수손실액은 2012년 47조원에서 2015년 55조4천억원으로 매년 약 2조5천억원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근로소득세 총 세수가 28조3천억원임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걷을 수 있는 총 세수(55조4천억원+28조3천억원)의 1/4만 걷은 셈이다.

정부는 2014년 법정세율은 그대로 두고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그 결과 세율갭은 1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중간값인 4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그 사이 중상위 구간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잠재 총 세수손실액이 총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잠재적 세수손실비중'은 2012~2015년 10% 내외로 일정한 편이었다.

이는 2014년 세액공제 전환이 고소득층의 세율갭을 대폭 감소시켰음에도 잠재 세수손실 비중을 줄이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논문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율갭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이 유난히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핀란드 등 7개 국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잠재 세수손실 비중은 10%대로 단연 1위였고, 2·3위를 기록한 일본·캐나다는 6~7%에 머물렀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1%에도 미치지 않았다.

논문은 조밀하게 분포한 중상위권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이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논문은 이런 점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상위 소득계층의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철도자산 활용 일자리 창출 2022년까지 2만8천개 육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본연의 업무인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외에 철도자산을 활용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8천 개를 새로 창출하고, 연간 3천300억 원의 자산개발·활용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산운영전략을 추진한다.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식으로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현재 16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를 방문해 우선 사용하게 하는 임대프로모션 등으로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도심지 철도시설은 점용허가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요역사 인근 부지의 복합역사, 환승센터와 역사권 개발 등 자산개발 사업을 현재 27개에서 2020년 50개까지 확대하고, 도심지에 방치된 철도교량 하부 공간 31곳을 발굴해 2만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2022 자산운영전략'이 실현되면 철도자산의 개발·활용에 따른 매출규모가 지난해 연간 1천2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연간 3천3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자산운영 수입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서 국유재산과 유휴부지 관리, 역세권 등 개발 다각화에 따른 신규사업 확대, 점용허가 중인 대규모 상업시설 관리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중심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

은찬운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산운영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자산을 활용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 로또 (815회)          |                            |
|--------------------|----------------------------|
| 추첨일 : 2018년 7월 14일 |                            |
| 번호                 | 17, 21, 25, 26, 27, 36 + 4 |
| 등위                 | 금 액                        |
| 1등                 | 2,579,855,358원             |
| 2등                 | 77,175,161원                |
| 3등                 | 1,767,371원                 |
| 4등                 | 50,000원                    |
| 5등                 | 5,000원                     |

## 5대은행 하반기 2천250명 채용

### 전년비 약 500명 ↑ ... 희망퇴직도 '만지작'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약 2천250명 채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이 총 1천75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0명 늘어난 수준이다.

15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 서면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이들 주요 시중은행의 하반기 공개채용 규모는 2천250명에 이른다.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규모를 최대 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일찌감치 연간 채용규모를 750명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8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을 포함해 신입행원 5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지주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은행 직원 총 6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정기공채 규모는 400명이며 이와 별도로 IT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200명 뽑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올 10월까지 하반기 공개공고를 내고 지난해 수준에 상응하는

450명을 뽑을 전망이다. 통상 불합기 졸업자를 고려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00여명을 더 뽑는다.

농협은행의 하반기 채용 인원은 지난해 수준인 15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채용 공고 시점은 9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이 주문했던 희망퇴직 활성화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일정 연령 이상 직원에 대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임금피크 대상자 전직 지원을 하고 이에 맞춰 신입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희망퇴직 범위를 근무연수 15년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총 1천11명이 희망퇴직했다.

신한은행도 예년 수준의 희망퇴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인위적인 희망퇴직에는 난색을 보였다.

농협은행은 하반기 명예퇴직은 예정됐지만, 세부 기준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건강코너에서는 품목별 건강상품을 할인판매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초복 음식, 건강·가격 동시에 잡으세요"

### 29일까지 광주 롯데 유통 계열사 '여름 보양식' 특별전

광주지역 롯데 유통 계열사(백화점, 마트, 슈퍼)들이 초복을 맞아 '여름 보양식'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 매장에서는 '건강 식품 특별 기획전'이 진행된다.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관장 홍삼 제품(홍삼정검술, 홍삼정환, 홍삼툄마일드)이 오는 29일까지 정상이 대비 5%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

천제명 매장에서는 오는 22일까지 홍삼

농축액(240g)을 46%, 녹용본(50ml X 60포)을 51%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롯데마트 광주 4개점(상무, 첨단, 수완, 월드컵점)도 오는 18일까지 초복 등을 맞아 '건강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양식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복날 음식 중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민어·장어·낙지' 특별 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한 복날 보양식으로 가장 인기

있는 닭고기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고기 전품목을 L.Point(구, 롯데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해 판매하고 잠프레 동물복지 닭 백숙 역시 회원 대상으로 특별 판매한다.

그 외 L.Point(구, 롯데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한우 사골(1.5kg) 한우 우족(1.5kg) 등 한우 냉동 부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서 판매 할 예정이다.

롯데슈퍼 광주 9개점(연제, 두암, 문흥, 봉선, 신가, 양산, 진월, 첨단, 풍암) 역시 오는 17일까지 주요 보양식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강상구 기자 rkdtkdm0913@

### 서구 치평동 리치니스 빌딩 임대

**1층 전용면적 286.36㎡(86.6평)**

구) 원조삼희불낙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0만원

☎ 062)673-2900

Fax 062)673-2901

###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7호 전용면적 111.73㎡(33.7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 나주혁신도시

##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